

# 夜宴의 ‘樂歌三章’ 연구\*

신경숙\*\*

〈차례〉

- I. 본고의 관심
- II. 순조조 夜宴 형식의 확립
- III. 연향의식 안으로 들어온 歌曲
- IV. 夜宴, 孝明世子の 정치적 기획물
- V. 夜宴만을 위한 노래, 樂歌三章

## I. 본고의 관심

조선후기 궁중 연향 중 夜宴에는 순수 성악공연 ‘樂歌三章’ 절차가 있었음이 근래 밝혀졌다.<sup>1)</sup> 그리고 첫 연구에서 악가삼장은 매 연향의식 거행 때마다 창작되었으리라 추정되었는데, 다시 최근에 당시 공연되었던 일련의 작품목록들이 발견되기에 이르렀다.<sup>2)</sup> 이러한 연구결과들에 의하면, ‘악가삼장’은 반드시 ‘女伶歌者’들에 의해 ‘睿製 혹은 御製作’으로 된 ‘歌曲(시조문학) 세 곡’이 연이어 가창되는 형태로 공연되었다.

\* 본 연구는 2005년도 한성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과제임.

\*\* 한성대학교

- 1) 신경숙, 「조선후기 연향의식에서의 가자」, 『국제어문』 29집, 국제어문학회, 2003, 299~324쪽.
- 2) 신경숙, 「19세기 궁중연향 한글악장-아연의 <악가삼장>을 중심으로」, 『시조학논총』 20집, 한국시조학회, 2004, 173~195쪽.

歌曲이라는 장르가 순수 성악공연물로 궁중의식 속에 하나의 절차로 정착되어 있었다는 사실은 매우 흥미롭다. 특히 널리 알려진 呈才 중심의 공연물과 대비된다는 점, 그리고 歌曲이 여항 가창물로 알려진 바와 달리 궁중의식용 성악곡으로도 기능하였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독특한 형태의 성악공연으로 진행된 夜宴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다. 궁중 연향의식이라고 하면, 의례히 外宴과 內宴만이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을 뿐이다. 이처럼 야연이 관심대상 밖에 놓이게 된 데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 夜宴은 외연·내연에 비해 너무도 작은 규모의 연향이기 때문이다. 그럼 과연 얼마나 작은 연향인가? 연향은 대개 주빈에게 올리는 爵(獻爵)을 중심으로 그 규모가 말해지는데, 外宴과 內宴은 대개 9작에서 7작 정도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매 작마다 呈才가 동시에 공연되어 그 화려함이 궁중연향으로의 격식을 갖추게 한다. 그에 비해 夜宴은 언제나 단 하나의 爵만이 올려질 뿐이다. 따라서 정재공연도 아주 적게 이루어진다. 야연이 관심을 덜 받았던 것도 무리는 아닌 듯싶다.

그럼에도 의문은 남는다. 夜宴은 조선조 내내 있었던 연향이 아니고, 19세기 초 순조조에 처음 나타나는 의례이다. 이미 사백년 이상 거행된 외연과 내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아주 작은 규모의 연향의례를 새로이 만들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점이다. 더욱이 夜宴은 상대한 內宴을 거행한 당일 밤 곧바로 이어 거행된다는 점에서 낮 內宴과 대비되어 더더욱 조출함을 드러낼 수밖에 없기에 그 의문은 증폭된다. 게다가 ‘악가삼장’은 오직 夜宴에서만 공연되는 절차이니, 처음 야연을 제정하면서 이 작은 규모 안에 성악공연 ‘악가삼장’을 창안해 넣은 필요는 무엇일까. 나아가 ‘악가삼장’은 야연의 작은 규모와 어떻게 관련되면서 야연의 의미를 드러낼 수 있게 되는가. 본고는 ‘야연과 악가삼장’을 둘러싼 이러한 일련의 의문들에 답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II. 순조조 夜宴 형식의 확립

夜宴 거행은 19세기에 들어서서야 시작된다. 19세기 야연의 첫 시작으로 부터 일반적 시행의 과정을 알아보기 위해 당시 거행된 야연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19세기 연향의식들 중에서의 야연 거행 목록

|                  |       |                          |
|------------------|-------|--------------------------|
| 1809(순조9, 기사)    | ×     | 혜경궁 홍씨의 회갑               |
| 1827(순조27, 정해)   | ×     | 순조와 순조비에게 존호를 올림         |
| 1828(순조28, 무자)   | 야진별반과 | 순조비의 40세                 |
| 1829(순조29, 기축)   | 야진찬   | 순조 40세, 즉위30주년           |
| 1848(헌종14, 무신)   | 야진찬   | 대왕대비(순조비)육순, 왕대비(익종비) 望五 |
| 1868(고종5, 무진)    | ×     | 대왕대비(익종비) 회갑             |
| 1873(고종10, 계유)   | 야진작   | 대왕대비(익종비)의 왕대비 책봉 40주년   |
| 1877(고종14, 정축)   | 야진찬   | 대왕대비(익종비) 칠순             |
| 1887(고종24, 정해)   | 야진찬   | 대왕대비 팔순                  |
| 1892(고종29, 임진)   | 야진찬   | 왕의 望五 즉위30주년             |
| 1901(광무5, 신축5월)  | 야진찬   | 명헌태후의 망팔                 |
| 1901(광무5, 신축7월)  | 야진연   | 고종 탄생50주년                |
| 1902(광무6, 임인4월)  | 야진연   | 고종의 기로소 입사               |
| 1902(광무6, 임인11월) | 야진연   | 고종의 망팔 즉위40주년            |

주지하는 바와 같이 19세기 연향의식은 일회 행사로 끝나지 않고, 夜宴과 翌日會酌으로 이어지면서 여러 차례 거행된다. <표1>은 이 중 야연의 경우만을 정리한 것이다. 첫 夜宴은 순조28년에 시작되고, 이후 고종5년을 제외하고는 모두 야연이 열렸다. 즉 야연은 첫 제정 이후 곧바로 정례화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첫 야연은 순조28년 '夜進別盤果'라는 명칭으로 처음 시행되었다. 순조28년은 세자였던 孝明이 純祖를 대신해 代理聽政하던 때이다. 그럼 이때 최초로 야연 '야진별반과'의 의식 순서의 마련은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을

까? 의식진행 절차를 「儀註」라고 부르는데, 일반적으로 연향의례의 의주는 『國朝五禮儀』<sup>3)</sup>, 『國朝續五禮儀』<sup>4)</sup> 혹은 역대의 연향 儀軌들을 참고하여 때마다 儀註들을 마련하게 된다. 그런데 ‘야진별반과’는 이전 시기에 그 사례가 없으므로 이들 의례책들을 참고하여 새로이 의식절차들을 만들었을 것이라 예상된다. 실제 ‘야진별반과’의 모든 순서는 다른 연향의식의 순서와 다르지 않다. 차이란,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헌작 순서를 ‘단 한번’으로만 한다는 유례가 없는 작은 규모의 의식을 만들어냈다는 정도이다. 그렇다면 바로 이러한 약식의 의식을 처음 기획한 것은 과연 누구인가? 이에 대한 단서가 1828년 『(무자)진찬의궤』에 들어있다.<sup>5)</sup>

안으로부터 써서 내림(自內書下)

이는 1828년 『진찬의궤』 「儀註」 중 ‘자경전야진별반과’ 명칭 아래에 달려있는 註이다. 일반적으로 儀註는 연향을 주관하는 진찬소에서 준비하는 것이 상례이다. 안(內) 곧 연향을 올리는 궁<sup>6)</sup>에서는 ‘거행 장소, 헌작자, 정재 낙점, 악장과 치사 작가’ 정도만을 지정해 내려 보낼 뿐이다. 그런데 1828년에는 內宴 儀註에는 없는 위의 언급이 야연 儀註의 註로 덧붙여져 있다. 이 註의 의미는 야연은 참고 사례가 없기에 세자궁에서 직접 써서 내려 보낸다는 말이다. 첫 야연 ‘야진별반과’의 의주, 곧 주빈을 향한 ‘단 한번의 헌작’으로 진행되는 순서는 바로 대리청정의 주역 효명세자에 의해 그 형식이 만들어졌던 것이다. 야연을 최초로 기획한 사람은 효명세자였던

- 
- 3) 세종 때 시작되어 성종5년에 완성 편찬되었다. 五禮에는 길례, 가례, 빈례, 군례, 흥례의 다섯가지를 말한다. 연향은 이 중 가례에 속한다.
  - 4) 영조 20년 왕명에 의해 성종조 『국조오례의』를 수정 보완한 의례집이다. 『국조오례의』를 250년 이상 시행해오면서 예가 해이해지고 제도로써 아름다움 못한 것, 속되어 준행할 수 없는 것, 시대에 맞지 않는 것 등을 바로 잡아 조선후기 규례집으로 거듭나게 한 것이다.
  - 5) 1828년 『(무자)진찬의궤』 권1, 「儀註」 ‘자경전야진별반과’. 『(무자)진찬의궤』는 한국음악학자료총서 3(은하출판사, 1989)에 영인된 자료를 활용한다.
  - 6) 주빈이 누구냐에 따라 연향을 올리는 사람이 달라진다. 대왕대비일 경우 대전(왕)이, 왕일 경우 세자가 올린다. 따라서 여기서 궁은 왕 혹은 세자궁을 의미한다.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야연의 첫 명칭을 보면 1828년 ‘야진별반과’로 지칭되고, 이후 두 번째 거행된 1829년에는 ‘야진찬’으로 명명된다. 그리고 이후 19세기 말까지 이 새 명칭은 그대로 사용되었다. 이는 당시 ‘夜宴儀式’이 단번에 만들어지지 않고, 일정한 시험적 기간을 거쳐 완성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첫 형식 마련 이후 어떤 보완 작업을 거쳐 19세기 내내 효력 있는 형식의 완성을 보게 되었는가. 이를 알아보기 위해 야연이 제정되는 효명세자 대리청정기 세 번의 연향에서 야연만을 집중적으로 주목해보기로 한다. 두드러진 변화만을 중심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효명세자 대리청정기 야연 형식의 완성과정<sup>7)</sup>

| 1827년 진작 | 1828년 진작                            |                        | 1829년 진찬                       |
|----------|-------------------------------------|------------------------|--------------------------------|
|          | 夜進別盤果<br>(악장 없음)<br>致語<br>(악가삼장 없음) | 명칭<br>악장<br>치사<br>악가삼장 | 夜進饌<br>先唱樂章 後唱樂章<br>致詞<br>樂歌三章 |

우선 효명 때의 첫 연향이었던 1827년 진작의식에서 야연은 없었다. 이후 1828년과 1829년에 야연은 처음 모습을 드러낸다. 그런데 이 두 야연은 ‘명칭, 악장, 치사, 악가삼장’의 부분에서 큰 변화가 나타난다. 이들 요소를 중심으로 그 변화의미를 밝혀보기로 한다.

우선 야연을 일컫는 명칭에서부터 변화는 시작된다. 첫 야연 ‘夜進別盤果’는 ‘밤에 別盤果를 드리는 의식’이라는 뜻이다. 별반과는 20器로 이루어진 宴床을 말한다. 당시 의식에서는 여러 찬품들이 의식 진행 내내 계속적으로 올려졌는데, 그 중 가장 크고 기본이 되는 연상이 ‘별반과’였다. 이에

7) 이후 본고에서 자주 사용하게 될 효명세자 시절의 세 권의 의례 다음과 같다. 1827년 『자경전진작정례의궤』(한국음악학자료총서 13, 은하출판사, 1989)에 영인됨. 1828년 『(무자)진작의궤』(한국음악학자료총서 3, 은하출판사, 1989)에 영인됨. 1829년 『(기축)진찬의궤』(한국음악학자료총서 3, 은하출판사, 1989)에 영인됨. 이후 이 의례의 인용은 출판사향 없이 도서명만을 기술하기로 한다.

비해 낮에 거행된 내연에서는 40器로 된 宴床이 올려졌고, 이 연상의 이름은 ‘饌案’이었다. 결국 첫 야연은 기본 연상의 이름을 따서 의식명칭을 삼았던 것이다. 이런 설명식의 의식명 자체가 첫 야연이 아직 완비된 형식은 아님을 말해준다. ‘야진별반과’는 이듬해에 ‘야진찬’이라는 새 이름을 얻게 된다. ‘야진찬’이란 낮에 거행되는 ‘진찬’에 대해, 밤에 거행되는 진찬이라는 뜻이다. 낮과 밤의 대비적 의미가 드러나도록 균형잡힌 儀式名으로의 변화를 취했던 것이다.

두 번째 변화는 ‘악장과 치사’에서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연향의식에서는 의식의 시작을 알리는 선창악장, 종료를 알리는 후창악장의 두 가지가 사용된다.<sup>8)</sup> 그런데 첫 야연에서는 아예 樂章이 사용되지 않았다. 의식의 기본인 악장 자체가 없다는 것은 아직 이 야연 형태가 하나의 의식으로 충분히 간주되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주빈이 爵을 들기 전에 올려지는 ‘致詞’ 대신 첫 야연에서는 ‘致語’를 사용하고 있다.<sup>9)</sup> 이미 ‘치사’가 조선전기 일찍부터 연향의식에 정착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치어’를 사용한 것 역시 ‘야진별반과’가 儀式으로 성립될 수 있는지에 대해 세자 자신이 아직 충분한 확신을 갖고 있지 못함을 의미한다. 그에 비해 이듬해인 1829년에는 先唱樂章과 後唱樂章을 갖추었을 뿐 아니라, 치어 대신 致詞가 전례 방식대로 사용되었다. 이러한 ‘악장과 치사의 정비’는 야연을 확고하게 하나의 개별 연향의식으로 자리 잡게 하는 시도라 할 수 있다.

세 번째 변화는 ‘樂歌三章’의 등장이다. 악가삼장은 첫 야연에는 없던 것이 1829년에 새로이 만들어진 절차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악가삼장’은 조선조 어떤 연향의식에도 없던 전혀 새로운 절차의 탄생이라는 사실이다. 야연이 다른 儀式들과 확연히 구별되는 특별한 절차를 가졌다면 그것은 바로 이 樂歌三章인 것이다. 악가삼장은 주빈인 왕이 세자

8) 신경숙, 「19세기 연향의식과 문화」, 한국중앙연구원 편, 『조선후기 궁중연향 문화』 권2, 민속원, 2005.

9) 일반적으로 연향의식에서 ‘致語’는 나타나지 않고 ‘致詞’가 사용된다. ‘치어’는 일부 정재에서 사용된다. 한편 첫 야연의 ‘치어’는 의례의 「악장」 항목에 수록되어 있으면서도 여전히 악장이 아닌 ‘致語’로 기록되고 있다. 당시 치어는 의식 순서로 보아 「악장」이 아닌 「치사」 항목에 수록되어야 마땅하다.

가 올린 爵을 앞에 놓은 상태에서, 치사 낭독이 끝난 후, 2명의 여령가자에 의해, 3편의 가곡이 연이어 불리는 형태로 진행되었다. 악가삼장 노래가 끝나면 주빈은 드디어 작을 들어 마신다.<sup>10)</sup> 결국 악가삼장은 종래 주빈에게 축하의 뜻을 전하기 위해 올려진 '치사'보다 훨씬 강도 높게 주빈을 높이기 위해 고안된 양식이었던 것이다. '치사'가 낭독되는데 비해 '악가삼장'은 노래로 불림으로써, '치사'가 한 편만 올려짐에 비해 '악가삼장'은 세편을 연이어 올림으로써 대비적으로 주빈을 향한 극진한 축하와 공경의 예를 표할 수 있도록 구조화된 절차였던 것이다. 이렇게 해서 樂歌三章은 야연을 다른 모든 연향의식들과는 구별되는 독특한 의식으로 특징짓기에 충분한 요소가 되었다.

이상의 내용들로 보아 첫 야연은 儀式으로의 성공 가능성에 비추어볼 때, 매우 불확실한 상태에서 시험적으로 시도되었음을 말해준다. 그러나 첫 시도에서 효명세자는 야연의 성립 가능성에 어느 정도 확신이 선 듯, 이듬해 儀式에 구비되어야 하는 관례적인 요소들을 적극 받아들여 보완 수정함으로써 최종적으로 완비된 형태의 '야진찬'을 내놓게 된다. 그런데 이는 단순히 관례적인 의례 형식의 완성만은 아니었다. 야진찬은 내용적인 면에서도 다른 의식들과 구별되는 야연만의 고유성을 갖출 수 있도록 구조화시키는 데에도 성공했던 것이다. 신생 의식 야연의 고유성은 바로 '樂歌三章의 고안'으로 그 실질적 완성을 이룩할 수 있었던 것이다.

### Ⅲ. 연향의식 안으로 들어온 歌曲

야연의 절차들은 여타의 연향의식들에 비해 규모면에서 작다는 것 외에는 지극히 전래적 요소들로 구성된 의식들이다. 이런 점에서는 야연의 성립은 절대적으로 오래된 기존 儀式들을 토대로 만들어졌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가운데서도 오직 樂歌三章만은 전혀 새로운 절차의 발명으로, 악가삼장 절차로 인해 비로소 야연은 야연만의 특징을 갖게 되었음을 밝

10) 신경숙, 「조선후기 연향의식에서의 가자」, 317~320쪽.

했다. 그렇다면 효명세자는 어떻게 이런 고유한 악가삼장 절차를 창안해낼 수 있었을까. 악가삼장의 주 장르인 가곡의 활용이 효명세자에게서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어디에서 기인하는가.

우선 악가삼장은 단순히 노래 세 곡이기보다 하나의 절차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먼저 주목해야 한다. 예컨대 기존에 있던 성악곡을 가곡으로 대체했던 것이 아니고, 아예 없던 절차를 만들어내고 거기에 가곡을 배치해 넣는 형태로 제작되었다는 사실이다. 그럼 최초의 악가삼장 공연방식을 통해 이 절차를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자.

<표 3> 1829년 악가삼장 공연방식

- \* 세자가 爵을 올림  
효명세자가 올린 爵을 상식이 받아 전하의 앞 床에 올림.  
왕세자 부복홍평신.  
왕세자 女官의 인도로 주립 밖으로 나가 拜位로 돌아가 꿇어앉음
  
- \* 치사낭독  
代致詞 여집사가 주립 밖 중앙에 당도하여 북향, 꿇어앉자 致詞 읽기를 마침.
  
- \* 악가삼장 공연  
歌者 2인(蓮心, 香心) 입장  
- 집박 여집사의 인도를 받아 계단에 올라 공연 자리에 나아감.  
집박 여집사가 휘를 들면 樂歌三章 공연 시작.  
- 반주음악은 祝聖人之曲<sup>11)</sup>.  
- 반주에 맞추어 歌者 2인(蓮心, 香心)은 歌曲 세 편을 부름.  
전하가 爵을 드시면, 상식은 나아와 빈잔을 받아 수주정에 돌려 놓음.  
歌者 2인(蓮心, 香心) 퇴장.

1829년 만들어진 이러한 공연방식은 대한제국기까지 그대로 이어진다. 이처럼 일정한 진행순서를 法式으로 고정시켜 공연된다는 점에서 악가삼

11) 신라의 오래된 옛 음악으로 삼현, 삼죽, 박판으로 합주한다는 註가 달려있다.



장 절차는 일종의 성악공연물 제작이다. 달리 말하면 정재가 춤 중심 공연물인 것과 같이 성악 중심의 공연물이라는 사실이다. 따라서 악가삼장은 효명세자 시절 제 공연물의 지각변동 속에서 조명되어야 한다.

효명 시절은 조선조 壬才史에서 가장 많은 변화를 보인 시기로 알려져 있다. 그 변화는 신작 정재의 창작, 기존 정재의 개작이라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그런데 이런 변화의 국면을 공연을 통해 직접적으로 보여주게 되는 것은 바로 야연의 발달과 관계가 깊다는 사실은 알려져 있지 않다.

우선 첫 야연인 1828년 '야진별반과'에서 무려 17개나 되는 정재가 공연되었다는 사실은 그동안 거의 주목받지 못했다. 야연은 약식 연회일 뿐이라는 선입견이 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로 많은 정재공연 현장의 의미를 놓쳤던 것이다. 같은 날 낮에 행해진 丙宴인 '進饌'에서는 모두 6번의 작<sup>12)</sup>에 정재는 12개가 공연되었다. 그에 비해 밤의 '야진별반과'에서는 2작<sup>13)</sup>에 정재 17개가 공연되었다. 야연의 정재는 연향규모면에서 볼 때 가능한 공연회수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정재였다. 이미 앞 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儀式의 필수조건인 '악장과 치사'조차 不備된 상태에서 지나치게 과다한 정재들의 공연은, '야진별반과'를 儀式이라기보다 마치 공연관람을 위해 임시 개최된 밤 연회 같은 인상마저 준다. 게다가 당시 정재는 '壽延長'을 제외한 나머지 16개 정재가 모두 唱詞 없이 춤만으로 공연되었다.<sup>14)</sup> '야진별반과'는 춤사위 자체에 주안점을 둔 공연장이라는 느낌을 갖게 한다. 야진별반과의 이러한 정재공연은 다음에 올 어떤 변화를 위한 준비 무대였던 셈이다.

다음의 변화는 같은 해 6월에 있었다. 이미 순조비의 四旬 기념 진작이 2월에 행해졌음에도, 1828년에는 5월에 생신을 맞는 순조비를 위해 6월1일 또한번의 약식 형태의 進爵을 열었다.<sup>15)</sup> 이때의 진작은 왕과 왕비의 主殿

12) 본디는 3작으로 기술되어 있다. 그러나 왕·왕비 각각 작이 올려지므로 총 6작인 셈이다.

13) 본디는 1작으로 기술되어 있다. 그러나 왕·왕비 각각 작이 올려지므로 총 2작인 셈이다.

14) 『(무자)진작의궤』 권1, 「정재악장」에는 제일 앞에 '수연장'의 정재악장이 소개되고, 다음 '初舞' 항목 아래에 "此以下只呈才 而不唱唱詞 故不載"라고 기록되어 있다. 실제 '초무' 이하 모든 정재는 정재이름과 약간의 설명이 註로 처리되어 있을 뿐, 창사는 없다.

15) 대개의 연향은 농한기를 이용하여 1, 2월 경에 베풀어진다. 이미 2월 정식으로 연향의

이 아닌, 효명세자가 대리청정기에 들어서기 전 공부하던 延慶堂에서 베풀어졌다. 6월 儀式이 약식인 까닭에 2작만<sup>16)</sup> 올렸으나, 역시 정재는 모두 17개가 공연되었다. 이때 11개의 정재는 효명세자가 직접 唱詞를 쓴 창작 정재였다. 6월 행사 역시 격식 갖춘 儀式이라기보다 세자에 의해 새로이 창작된 정재를 관람하기 위해 임시 개설된 연향이라는 인상을 질게 풍긴다. 즉 창작 정재, 그 성공 여부를 가늠하는 시험적 무대였던 것이다. 그런데 이 睿製 창작 정재들 중 ‘경풍도’ ‘만수무’는 歌曲을 이용하여 정재를 만드는 특별한 시도를 한다. 당시 효명세자가 창작한 ‘경풍도’ ‘만수무’의 가곡은 다음과 같다.

‘慶豐圖’ 창사

올도 풍녕이요  
내년도 풍년이라  
연년풍년이니  
만민이 장재풍연중(長在豐年中)이로다  
선인이 봉옥함하니  
일폭 경풍도(慶豐圖) | 로다  
가화(嘉禾) | 구수(九穗)니  
송아왕덕(頌我王德)이샷다

‘萬壽舞’ 창사

어저 만재(滿載)이여  
만재에 낙만재로다

식이 개최되었음에도 또다시 ‘진찬의식’을 생신날에 맞추어 연다는 것 자체는 아무리 약식 형태일지라도 관계적인 것은 아니다. 1829년 6월에도 왕의 실제 생신날에 맞추어 역시 6월에 또한번의 약식 연향의식이 개최된다. 이렇게 두 번씩 행해지는 연향형태는 효명 때가 유일한 사례로, 이후 이런 연향양식은 전승되지 않았다.

16) 본디는 1작으로 기술되어 있다. 그러나 왕·왕비 각각 작이 올려지므로 총 2작인 셈이다.

만재에 억만재하니  
 억만재에 우억억만재(又億億萬載)로다  
 저 사불희 깊은 나무는  
 가지가 만코  
 근원 먼 물은  
 호로미 길도다  
 문왕(文王)의 손자(孫子) |  
 본지백세(本支百世)시니  
 성조선원(聖祖璿源)이  
 면면영창(綿綿永昌)이샷다  
 오홉다 우리 후(后)여  
 보록(寶錄)이 무강(無疆)이샷다

이들 작품은 정재 속에서 각각 가곡 編 악곡에 올려졌다. 11개 창작 정재 중 2개라면 그다지 많은 수는 아니다. 그러나 정재에서 歌曲을 악곡과 창사로 사용한 것은 이때가 처음이라는 사실을 생각하면, 가곡의 정재음악으로의 유입은 매우 혁신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6월 공연으로 가곡의 정재음악 쓰임이 성공했다고 자부했음인지, 이듬해인 1829년에는 아예 가곡만으로 음악을 구성한 정재 2개가 다시 만들어지기에 이른다. ‘사선무’, ‘무애’가 그것인데, 이들 역시 睿製 作이고, 가곡 악곡으로는 역시 편을 사용했다.

‘四仙舞’ 창사

어와 성대로다  
 해동금일 성대로다  
 나대(羅代)에 노든 사선(四仙)이  
 이제와 다시 노니  
 봉래로 오시는가  
 영주로 오시는가  
 옥제(玉帝)게 명(命)을 바다

성주(聖主)게 수(壽)를 바다  
오대(鰲臺)로 조츠와서  
봉궐에 조하(朝賀)하니  
북극 빛난 별을  
옥작(玉爵)에 더르고져  
태평으로 스구민 기상  
오날와 보단 말가  
남산고 한수장(南山高漢水長)이  
황도(皇都)에 근본이니  
천추만세 이저곰 무강하다  
경풍도(慶豐圖) 국상서(國上瑞)를  
다시곰 비옵노니  
춘대옥축(春臺玉燭)에  
만물이 소휘(蘇篋)로다  
동악(東岳)을 향흐올가  
서악(西岳)을 향흐올가  
남악(南岳)을 향흐올가  
북악(北岳)을 향흐올가  
중악(中岳) 놓흔 피이  
삼각(三角)이 아니는가  
만년진국(萬年鎭國)하야  
제업(帝業)이 되시거다  
어와 우리들은  
중악(中岳)에 노라웁즈  
삼각산 상상봉에  
서운(瑞雲)이 총울(蔥鬱)하니  
금궐옥전(金闕玉殿)에  
보좌가 빛느세라  
(하략)



‘無尋’ 창사

성인미채(聖人眉彩)는  
 전중앙(殿中央)이시니  
 아악육요(雅樂六么)에  
 화자무(花字舞)하니  
 준영산하만세(樽映山河萬歲)이로다  
 대라천상강선향(大羅天上降仙香)이로이다

남산송백 빗치  
 장춘(長春)코 불로(不老)타다.  
 비노니 성인수(聖人壽)를 도모라 누리쇼셔 아으  
 만년 만만년에 황도(皇圖)가 영공(永鞏)이쇼셔

빛나온 수성(壽星)이  
 남극이 아니신가  
 가업슨 크운 수(壽)가  
 불자(佛慈)가 아니신가  
 향사(恒沙)가튼 수(數)에  
 보주(寶壽)를 더옵고져  
 옥촉(玉燭) 발근 빗치  
 수역(壽域)에 빛나스니어와  
 우리들이 태평을 노라세라  
 백년이 이것고야  
 천년이 이것고야  
 만년 우 억만년(萬年又億萬年)이  
 년년 이것고야  
 옥력천추장(玉曆千秋長)을  
 비라와 드리노다

‘경풍도’ ‘만수무’가 歌曲과 漢詩창사를 섞어 정재를 만들었다면, ‘사선무’와 ‘무애’는 오로지 歌曲만으로 전편을 구성한 정재이다. ‘사선무’ 같은 경

우 꽤나 긴 장편 창사인데이 전부를 가곡으로 지었다. ‘무애’의 경우 세 편의 창사가 필요한데, 역시 이 모두를 가곡으로 지었다. 이들 창작정제에서 가곡은 전면적으로 사용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이상 일련의 창작정제 마련 과정은, 사실상 1828년 첫 야연에서부터 비롯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처음 시도되는 약식 연향 夜宴에서 거의 불가능 하리만큼 많은 정제를 唱詞없이 춤만으로 공연했다는 것은 이미 이때 효명세자가 창작 정제를 기획하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이는 6개월 후 연경당 공연에서 사실로 드러난다. 역시 약식 연향이지만, 엄청나게 많은 정제 공연, 그러나 이번에는 창작 정제가 주류를 이루는 전혀 새로운 무대를 펼쳐 보였다. 그리고 이 창작정제에서는 가곡이 전격 사용되어 그 성공이 확인되었다. 가곡으로 된 창작정제는 다시 육개월 후인 1829년으로까지 창작을 계속 이어가며 영역을 넓혔던 것이다.

‘樂歌三章’ 절차의 제정 시기는 바로 이 시기와 일치한다. 첫 야연, 즉 기존 절차들을 약식으로 꾸며 만든 미미한 형태의 야연은 별 특색 없는 조촐한 儀式이었을 뿐이다. 그런데 바로 창작정제를 만들어가던 이 시기에 가곡 공연물 ‘악가삼장’ 절차를 만들어 넣음으로써 야연은 다른 어떤 연향 의식과 비교해도 뒤떨어지지 않을뿐더러 오히려 異彩로운 儀式으로 탈바꿈하게 된다. 야연을 위한 악가삼장의 절차 구성 확정(표3)은 정제 절차 제작과 비슷하고, 악가삼장의 가곡 세 편은 창작 정제에서의 가곡 사용과 궤를 같이 한다. 악가삼장의 가곡들은 그 문학적 형태가 사설시조처럼 긴 것으로 보아 농, 낙, 편으로 불렸을 텐데,<sup>17)</sup> 정제의 가곡들도 편과 계락으로 불렸던 사실 또한 우연의 일치만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악가삼장이 효명세자 주도의 정제 창작과정에서 그 형식이 만들어졌음을 밝혔다. 그러나 ‘악가삼장에서의 가곡’은 비단 ‘정제에서의 가곡 사용’에서 받은 영향에 국한되지 않는다. 오히려 이는 효명세자의 歌曲 선호도와 더 폭넓게 관련을 맺으며 가곡 장르를 선택하게 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17) 악가삼장의 악곡이 확인되는 것은 헌종 御製 ‘벽도화가 편, 고종 어제 ‘늬홀스’가 만형, ‘康衢’가 계락이다. 그 외 작품들의 악곡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신경숙, 『19세기 궁중연향 한글악장-야연의 <악가삼장>을 중심으로』, 앞의 논문, 184, 187쪽.

왜냐하면 효명은 야연 이외의 연향에도 가곡을 이끌어와 사용한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이는 1829년 2월 외연과 6월 진찬 공연에서 확인된다.

일반적으로 외연에는 여러 獻爵들 중에서 그 의미비중이 높은 제1작과 제2작 순서가 끝난 후, 축하객인 參宴諸臣에게 ‘饌物과 꽃, 술’ 등을 내려주어 주빈과 축하객이 함께 음식을 나누는 순서가 마련되어 있다. 이 순서에서는 4명의 歌者와 2명의 琴瑟로 이루어진 ‘歌者和 琴瑟’ 공연이 펼쳐진다. 이 ‘가자와 금슬’ 절차는 조선전기부터 있었던 아주 오래된 성악 공연이다.<sup>18)</sup> 그러나 이 절차에서 불린 노래들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그런데 1829년 2월 효명세자는 이 순서에서 부를 가곡 7수를 창작해 내려 보낸다.<sup>19)</sup> 이 7수는 시가 형식으로 보아 사설시조에 해당한다. 따라서 노래는 가곡 악곡 중 농, 낙, 편 중 어느 악곡으로 불렸을 것이다.

같은 해 6월 약식 진찬의 ‘가자와 금슬’ 공연을 위해서도 역시 7수 작품을 창작했다. 이때의 가곡은 단형의 평시조 형태였다. 따라서 악곡은 앞의 농, 낙, 편과 달리 정격의 초, 이, 삼삭대엽 중 어느 악곡으로 불렸을 것이다. 6월의 작품들은 『(육당본)청구영언』에 고스란히 수록되어 전한다.<sup>20)</sup>

2월과 6월 효명세자의 가곡 작품들은 여향에서 초빙된 4명의 歌客, 곧 정수경 양천호, 김수익, 임성창에 의해 공연되었다. 그런데 이들의 공연은 당시 『(기축)진찬의궤』 首卷 「圖式」 중 ‘문才圖’에 ‘歌者’라는 文才名으로 기록되고 있다. 이는 ‘가자와 금슬’ 공연을 ‘성악 정재’로 기록한 최초의 문헌이다. 효명세자가 당시 부왕인 순조를 위한 진찬을 준비하면서, 가곡을 연향 안으로 얼마나 깊숙이 가져왔는지를 알 수 있게 하는 대목이다.

결국 효명은 ‘외연, 내연, 야연, 익일회작연’ 중에서 ‘외연과 야연’에 가곡 공연을 배치해놓았던 것이다. 그런데 이 중 외연의 ‘가자와 금슬’은 조선

18) 신경숙, 「조선조 외연의 성악정재, 歌者」, 『시조학논총』 22집, 한국시조학회, 2005.  
 19) 익중, 『(기축이월)예제』에 ‘목멱산’ ‘한강’ ‘춘당대’ ‘금일낙’ ‘축성수’ ‘송성덕’ ‘헌천부’의 제목으로 장형 가곡 7수가 실려 있다. 현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 『익중문집』 II(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 1998)에 영인되어 있다. 신경숙, 「순조조의 외연의 한글 악장」, 『한국시가연구』 15집, 한국시조학회, 2004, 287~313쪽.  
 20) 『(육당본)청구영언』 영인본, 경문사, 1974. 이삭대엽 안에 ‘익중대왕’ 이름 아래 7수가 실려있다.

전기부터 있었던 오래된 연향 절차라고 했다. 따라서 외연의 ‘가자와 금슬’은 본디부터 성악곡으로 된 공연이었고, 효명은 그 장르를 가곡으로 선택하고 자신이 직접 창작한 작품으로 공연토록 했던 것이다. 그에 비해 야연의 ‘악가삼장’은 규례에 없던 절차를 새로이 성악공연 형태로 만들면서 그 장르로 가곡을 지정했다는 점에서 다르다. ‘악가삼장’에 이르러 효명의 가곡 공연은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 실행되었던 것이다.

가곡은 일반적으로 여향음악으로만 알려져 왔다. 그러나 효명세자 대리청정기에 가곡은 궁중 연향의식에 매우 깊이 개입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가곡의 이러한 쓰임에 효명세자는 매우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었다. 이처럼 여향의 노래양식이 궁으로 흘러들어가 의식용 음악으로 사용되는 것은, 고려시대 민간 가요가 궁으로 들어가 오늘날 우리가 보게 되는 고려가요로 남겨지게 된 상황과 다를 바 없다고 하겠다.

#### IV. 夜宴, 孝明世子の 정치적 기획물

야연은 주빈과 헌작자 1인만으로 이루어지는 의식이다. 이런 까닭에 야연에서의 ‘주빈 - 헌작자’는 언제나 ‘왕 - 세자’ 혹은 ‘대왕대비 - 왕’으로 고정될 수밖에 없다. 애초에 효명세자는 ‘왕 - 세자’만의 의식을 만들고자 야연을 창안해 냈던 것이다. 그런 점에서 ‘왕 - 세자’만의 긴밀한 유대의 표현을 위해 ‘악가삼장’ 절차의 발명은 필연적이었던 셈이다.

그렇다면 효명세자 시절 이런 목적을 위해 야연을 만들기까지 해야 하는 필요가 과연 있었을까? 흔히 부왕에 대한 세자의 지극한 효 때문에 연향이 자주 개최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는 일반적인 이유는 될 수 있어도, 하나의 제도인 儀式의 창안에 대한 이유는 될 수 없다. 더욱이 연향이란 막대한 경비와 엄청난 준비기간을 필요로 하는 국가 행사이기에 더욱 그러하다. 그렇다면 대리청정의 주관자 세자가 정치일선에서 물러난 부왕에게 드리는 존경과 찬양의 극치를 반드시 儀式을 통해서까지 표현해야 할 필요가 있었을까? 儀式의 고안, 그리고 이를 제도로 확립시켜 정례적으로



실현코자 했던 세자에게는 이를 요구하는 어떤 불가피한 상황이라도 있었던 것인지 매우 궁금하다. 이제 야연을 마침내 하나의 의식으로 완성, 실현시켰던 효명세자의 당위적 필요는 무엇이었는지 찾아나서 보기로 한다.

효명세자는 1827년 2월 순조를 대신해 정치를 시작한다. 당시 부왕인 순조는 마흔살이 채 안되었음에도 늙음을 표면적 이유로 내세워 열아홉 살 효명세자에게 代理聽政을 명한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11살 어린 나이로 왕이 된 후, 정순왕후의 수렴청정을 거쳐 親政에 들어섰지만, 장인인 김조순으로 대표되는 안동 金門의 세도 정권 아래서 자신을 뜻을 펼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순조는 이를 위한 대안으로 일찍부터 세자에게 희망을 걸었고, 드디어 마흔이 되기 전에 세자로 하여금 대리청정케 했던 것이다. 실제 세자는 대리청정을 시작하는 즉시 적극적으로 국정을 처리해 나갔다. 청정 사흘만에 행해진 새로운 인사조치와 김조순 계의 처단 그리고 자신의 국정을 도와 줄 관료 육성을 위한 각종 응제·강·제술의 增試 등 강력한 왕권 강화를 실시해 나갔다.<sup>21)</sup>

바로 이러한 긴박한 정치 사안들을 처리해가던 대리청정 출발기 첫 삼년 안에, 막대한 경비와 연인원이 소요되는 궁중 연향의식을 효명은 세 차례나 단행했다. 이 점이 이미 당시 연향의식이 왕실 전례에 따른 의식이기만 했던 것은 아님을 잘 말해준다. 게다가 세 번의 의식에는 역사상 그 사례가 없는 儀式들을 새로이 고안해내면서까지 실행한 의식들이 다수 포함됨으로써 실제로는 훨씬 더 빈번한 연향을 치루었던 것이다.

<표 4> 효명세자 대리청정기 연향의 개별의식들

| 1827                 | 1827년(丁亥) 진작              | 1828년(戊子) 진작                       | 1829년(己丑) 진찬                                | 1830 |
|----------------------|---------------------------|------------------------------------|---|------|
| 2월<br>대리<br>청정<br>시작 | 순조·순조비 존호 올리기<br>원손 탄생 기념 | 순원왕후 四旬기념                          | 순조 四旬<br>즉위 30주년 기념                         | 급서   |
|                      | 9월 자경전 진작례                | 2월 자경전 진작<br>자경전 야진별반과<br>자경전 익일회작 | 2월 명정전 외진찬<br>자경전 진찬<br>자경전 야진찬<br>자경전 익일회작 |      |
|                      |                           | 6월 연경당 진작                          | 6월 자경전 진찬<br>자경전 야진찬                        |      |

21) 한국역사연구회, 『조선정치사』 상, 청년사, 1990, 94~102쪽.

효명의 대리청정기는 문자 그대로 연향 개최와 긴밀한 관계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매년 연향을 열었는데, 특히 1828년과 1829년에는 6월에도 또한번의 약식 의식을 가짐으로 결과적으로 거의 반년 만에 한번 씩 연향을 연 꼴이 되었다. 연향이 막대한 국가적 재정을 필요로 하는 행사이기에 이러한 연향 개최는 국가적 정치적 어떤 목적이나 필요를 전제하지 않고는 이해하기 어렵다. 실제 위 연향 목록만으로도 세자의 어떤 정치적 목적 내지는 의도가 배면에 깔려 있음을 간파할 수 있다. 왜냐하면 위 목록 연향의 상당 부분, 곧 음영 처리 부분이 바로 효명이 처음 제작한 연향이기 때문이다.

우선 두 번의 進爵과 한 번의 進饌이 열렸는데, 이 중 進爵은 종래에 없던 연향을 효명이 처음 시작한 것이다. 앞서 夜宴이 연향 내 개별의식의 창안이었다면, 進爵은 아예 새로운 목적을 가진 새로운 형태의 연향을 만든 것이다. 조선후기 궁중 연향으로는 ‘進宴’과 ‘進饌’이 있었다.<sup>22)</sup> 효명은 1827년 대리청정을 시작하면서 부왕과 모비에게 존호를 올리고 연향 베풀기를 원했다. 그런데 존호를 올리는 일은 흔한 일로, 존호 올림을 기념해 연향을 베풀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효명은 존호 올리는 기념식을 원했고, 마침 7월 원손이 태어나자 경사가 겹쳤음을 핑계로 드디어 종래에 없던 진찬보다 다소 규모가 작은 ‘進爵’이란 연향을 만들어 거행하기에 이른 것이다.<sup>23)</sup> 최초의 進爵儀式이기에, 당시 행해진 진작례는 앞으로 있게 될 진작례들을 위해 그 禮式 전말을 정비해 두어야 했다. 그래서 남겨진 의궤가 『慈慶殿進爵整禮儀軌』가 되었다. 대리청정 초부터 왕과 왕후를 위한 연향부터 열 계획을 가졌고, 이를 실행하기 위해 ‘進爵’이란 의식을 새로이 만들 만큼 그의 대리청정은 세도정국 하에서 부왕이 품었던 포부를 이어 받드는 것이고, 이러한 대리청정의 의미는 儀式을 통해 대외적, 공식적으로

22) 연향규모 면에서 볼 때, 진연이 제일 크고, 그 다음이 진찬, 진작 순이다.

23) 실체는 진찬보다 작은 규모이나, 당시 효명세자의 언급은 반드시 그렇지 않았음을 말해 준다. “반드시 진연이나 진찬으로 이름을 붙일 필요는 없고, 조그만 술자리를 베풀어 경사를 기념하려고 한다. 그런데 병신년의 진찬의식 절차는 너무 생략한 듯하니, 이번에는 넉넉하례 마련하고, 儀註는 進爵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국역 순조실록』 데이터베이스, 순조27년 7월 25일조.

천명되어야 할 사항이었던 것이다. 대리청정 초부터 연향을 필요로 했고, 그래서 끝내 '進爵禮'를 만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이다.

進爵禮에 이어 그는 개별의식들도 계속 만들어 갔다. '夜宴과 翌日會酌宴'이 그것이다. 夜宴은 낮 연향을 마친 날 밤에 '왕 - 세자'만으로 이루어진 연향이었고, 翌日會酌宴은 연향 다음날 연향주최자인 '세자와 연향실무자·내외명부'가 함께 하는 연향이었다. 말하자면 익일회작연은 세자가 연향을 받는 행사이다. 야연이 '왕 - 세자' 간 긴밀한 유대의 천명이라면, 익일회작은 '정국의 새로운 주도자인 세자' 자신의 위상을 과시하는 의식이다. 외척의 세도정권으로부터 벗어나 왕권의 회복을 위해 대리청정을 시작한 갓 스무살의 세자에게 야연과 익일회작은 이러한 정치적 목적을 위해 불가피하게 필요한 의식들이었던 것이다.

연향이 갖는 이러한 효명의 정치적 목적성은 연향진행 과정에서는 좀더 분명히 드러난다. 우선 가장 직접적인 정치적 의도는 연향을 기획하는 단계에서 노정된다. 기축년 진찬행사를 처음 發意하는 대목에서 세자는 신하들에게 '진찬의식 후 科擧를 시행해도 괜찮은지'에 대해 묻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아래의 글은 1828년 11월에 이듬해 순조의 즉위30주년을 위한 稱慶의 예를 베풀 수 있는지를 묻는 세자의 질의와 이에 대해 신하들이 역대 왕들의 사례를 들어 可하다는 답을 올린 직후 이어진, 세자와 신하들 간의 또다른 논의 대목이다.

“금년의 칭경은 위로 아뢰고 아래로 반포해야 하는가” 라고 하니, 서준보가 “이번 봄에는 포고를 아니하였으므로 科擧를 베푸는 것은 거행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였다. 명령하여 말씀하시길, “위로 고하고 아래로 반포한 즉, 增廣試를 설치해도 되겠는가?” 하시니, 이상황이 “增廣試나 庭試를 막론하고 경축하려는 것은 같습니다. 칭경이라는 예는 뒤에 그때의 시세에 따라 설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고, 서준보는 “先朝(정조) 20년은 칭경으로 과거를 거행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라고 하였다. 명령하여 말씀하시길, “선조 20년에 慶設科를 합해서 시행하였는가?” 하니, 서준보가 말하길 “6경을 합하여 庭試를 설치했습니다.”고 하고, 남궁철은 “지금 내년의 亞歲는 길일이므로, 이와 같이 불러 모아 서로 물어보는

성대한 거행이 있었고, 칭경을 왕에게 청하는 것은 마땅히 表裏를 올린 뒤에 하겠습니까?” 하니, 답하여 말씀하시길, “그렇다”고 하셨다.<sup>24)</sup>

위 논의는 다음 해에 개최코자 하는 칭경례 거행의 타당성에 대한 첫 논의 기록의 일부이다. 그런데 효명세자는 즉위30년의 칭경 사례가 있다는 대답을 들은 즉시, 그렇다면 이번 칭경의식에서 과거시험을 볼 수 있는지를 제일 먼저 거론하여 논의에 붙인다. 불가함을 거론하는 신하들에게서 끝내 과거시험이 가능한 전범적인 선례 몇 가지를 이끌어낸 후에야 첫 회의는 비로소 매듭지을 수 있었다. 말할 것도 없이 진찬의식의 목적에는 비정치적 과거를 치르려는 의도를 깔고 있었던 것이다. 세도정국 아래서 새로운 측근 인재를 얻기 위한 세자의 의도가 연향개최 가능성을 타진하는 첫 논의에서부터 노정되고, 위키는 그 의도까지 기록으로 남겼던 것이다. 왕권 강화를 위한 일련의 노력 한 가운데에 진찬의식도 자리하고 있었던 것이다.

위 논의가 연향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려는 의도를 보여준 것인데 비해, 연향의식을 주도적으로 기획해 나가는 과정에서 ‘세자와 신하’ 사이 빚어진 갈등은 이미 ‘儀式 자체’가 일정한 정치적 향방과 의미를 담고 있음을 말해주기도 한다. 이 사건은 1829는 진찬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표면화된다. 세자는 己丑 進饌을 위해 자신의 측근인 대사헌 朴崎壽를 대사헌 겸 대사옹원 제조로 낙점한다. 박기수와 함께 진찬을 치루어낼 의도였던 것이다.<sup>25)</sup> 의식의 준비가 한창 진행되던 1829년 1월 10일 박기수는 ①習儀를 모두 大內에서 하는 것의 부당함 ②世子가 일일이 女伶 연습에 지나치게 관심을 갖는 것의 부당함을 들어, 모든 연습은 해당 관리에게 맡길 것을 건의한다. 그런데 세자는 이 건의가 들어오자마자 같은 날 박기수를 이조 참판으로, 다시 이틀 후 예조 참판으로 삼은 후 그를 진찬소 당상으로 차

24) 『(기축)진찬의궤』 권1 「筵說」 1828년 11월 16일자 기사. 위 번역은 한국음악사료연구회의 『국역 순조 기축년 『진찬의궤』1』, 『한국음악사학보』 14집(한국음악사학회, 1995, 137쪽)의 번역자료를 그대로 인용했다.

25) 『(기축)진찬의궤』 권1, 「令教」 1828년 11월 24일자 기사.

하한다<sup>26)</sup>. 사옹원제조는 진찬 행사장에서 왕에 대한 모든 進止를 맡는 역할을 한다. 진찬소 당상은 진찬 준비와 관련된 모든 일을 관할한다. 따라서 '사옹원제조'에서 '진찬소 당상'이 되었다는 것은, 진찬준비와 관련한 구체적인 일을 당상이 일일이 관여하게 만든 것이다. 다시 말해 박기수는 세자의 처신으로서는 不當하다고 말한 '習儀와 女伶 演習'과 관련한 일을 자신이 직접 주재하게 된 것이다. 사태가 이에 이르게 되자 박기수는 세자의 저의를 깨닫고 이튿날 막바로 견책하여 달라는 청을 올리게 되고, 이에 따라 세자는 심히 노한 상태에서 그를 호남 남평현으로 유배보낼 것을 결정한다.<sup>27)</sup>

진찬의식 준비 과정에서 세자는 어떠한 저항도 용납지 않았던 것이다. 심지어 가장 측근이었던 박기수마저 유배시키면서까지 감행하고자 했을 만큼 당시 진찬은 무리한 의식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사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박기수의 충성을 잘 아는 黃鍾人을 비롯한 좌의정 이상황, 대사간 정원용, 지평 이정기 등이 계속적으로 그의 용서를 건의하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러는 사이 김진성, 김석룡, 위적철 등은 글을 올려 박기수의 죄를 논하며 찬배의 율을 어서 적용시킬 것을 건의하기도 한다. 말하자면 이 사건은 '세자와 신하' 사이만이 아니라, '신하 내부의 대립된 의견의 갈등'도 불러온 것이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고 세자의 노함은 여전히 가라앉지 않은 상태에서 기축 진찬의식은 치러진다. 후에 영의정 남공철이 사직과 박기수의 용서를 청할 때에야 세자는 그를 용서할 것임을 시사한다. 그리고 삼일 후 박기수는 석방된다. 그리고 역시 같은 날, 세자의 노기에 편승해 박기수를 논죄하던 김진성, 김석룡, 위적철 등은 파직시킨다. 이는 박기수의 충심에 대한 의심이 애초에 세자에게 있었던 것은 아님을 시사한다.<sup>28)</sup> 이 사건은 진찬을 둘러싸고 세자의 측근 내부가 얼마나 뒤편으로 흔들렸는지를 잘 말해준다. 그 표면적인 이유는 習儀를 大內에서 해서는 안 된다는 것과 여령 감독은 有司에게 맡겨 세자의 할 일은 아니

26) 『순조실록』, 순조29년 1월 10일, 1월 12일 기사.

27) 『순조실록』, 순조29년 1월 13일 기사.

28) 『순조실록』, 순조29년 1월 22일, 2월3일, 2월 4일, 2월 5일, 2월 21일, 2월 24일 기사.

라는 정도의 반대이다. 그러나 이 후 전개된 사태의 과정은 그 이상의 뒤편으로 세자와 신하들이 갈등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실제 박기수의 유배와 용서를 두고, 세자와 신하들 간에 서로 주고받은 내용들을 보면, ‘여령에 대한 감독은 역대 다른 왕들의 경우에도 흔하다’는 것, 그리고 ‘신하된 자는 주군이 聲色에 빠져지지 않도록 늘 의식준비를 앞두고 이런 충성의 말을 하는 것은 관례’ 라는 사실에 대해 서로 認知하고 있었다. 더욱이 당시 박기수는 대사헌이었으니, 언간으로써 마땅히 할 말을 한 것이라는 사실을 세자도 신하들도 잘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사태가 일파만파로 커져버린 것은, 세자와 박기수로 대표되는 측근 사이에 宴享儀式을 두고 서로 대립되는 이견들이 따로 있었음을 말해주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이미 거의 육개월 간격으로 베풀어지는 잦은 연향의식도 문제였겠지만, 의식 자체의 개혁에 과도하게 집착하는 세자의 태도에 대한 측근들의 우려가 배면에 깔려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미 일 년 전인 1828년 새로운 儀式의 창안은 물론, 새로운 정재 개발로 엄청난 물리적 에너지를 소비하고 난 후, 이제 이를 다시 의례제도 안에서 안착시키려고 1829년 진찬 준비를 진두지휘하는 과정에서 드디어 세자와 측근 신하들 사이 의견 대립은 꽤나 깊어졌음에 틀림없다.

결국 이러한 일련의 일들은 연향의식을 통해서만 가능할 수 있는 어떤 정치적 목적을 끝내 이루려는 세자의 의도에서 기인되었다 추정된다. 실록과 의궤의 기록들은 바로 이러한 의도된 흔적들을 남긴 것이라 파악된다. 그리고 연향을 둘러싸고 일어난 이러한 정치적 움직임들은 실은 효명세자가 부왕 대신 대리청정에 돌입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과 관련되어서만이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다.

이제 바로 이 갈등의 한복판에서 하나의 儀式으로 완성을 본 夜宴 안으로 들어가 보자. 야연은 ‘주빈인 王과 차기 대권자인 세자’만의 각별함을 드러내는 방향으로 구조를 완성시켰다. 야연은 참석자를 ‘왕과 세자’만으로 국한시켜 놓았다. 그 외에는 의식을 돕는 女官이나 女伶들 뿐이다. 간략하나 그 의미는 아주 선명하게 드러난다. 왕권 회복을 꿈꾸는 왕과 대리청정의 주역인 세자 사이를 클로즈업시킨 것이 야연이었던 것이다.

좀더 미시적으로 이 夜宴用으로만 만들어진 '樂歌三章'으로 들어가 보자. 세자가 올린 '爵을 앞에 놓은 채' 듣게 되는 극진한 찬사의 노래는 바로 '왕과 세자'가 공유하는 세계에 대한 다짐이자 밖으로는 공식적인 천명이 된다. 그 최상의 효과를 위해 보다 직접적인 '감동'을 필요로 했을 것이고, 감동을 전할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우리말 노래'였을 것이다. 그 노래는 당시 널리 時行되고 있는 익숙하면서도 품격 있는 장르 '歌曲'이 선택되었고, 또 그 지극함은 '연속적인 세 곡'을 필요로 했을 것이다.

'야연과 그 안의 악가삼장', 이는 이를 처음 고안해내고 실현했던 바로 '순조와 효명세자의 기획'이요, 이러한 이들의 기획은 곧바로 효명세자의 강력한 정치적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는 원동력이었던 것이다. 야연과 악가삼장, 그것은 암울한 세도 정권 아래서 '왕과 세자' 그들의 굳건하고도 긴밀한 유대를 대내외적으로 드러내주는 아주 효과적인 의식이요 절차였었던 것이다.

## V. 야연만을 위한 노래, 악가삼장

### - 결론을 대신하여

궁중 연향의식은 대개 의례에 따른 행사일 뿐으로 여겨진다. 이에 따라 연향에 사용된 악장과 치사들도 대개 그 의미에 대해서도 이미 연향목적 을 통해 해답을 얻었다고 여겨지게 마련이다. 그런데 효명세자 대리청정기에 개최된 일련의 연향의식들은 이러한 우리의 상식을 깬다. 오히려 당시 연향들은 매우 긴박하게 돌아가는 정국의 흐름을 거대한 국가적 의식 속에 그대로 담아내고 있었다. 사항의 긴급한 중요도만큼이나 연향의식들은 때마다 수정되고 새로이 창출되기도 했던 것이다. 국가 의례 그것은 언제나 고정된 것이 아니라, 역사적 시기마다 그 구성원의 필요를 위해 새로이 갱신되며 모습을 바꾸고 있는 역동적인 의례들이었던 것이다.

본고는 효명세자 대리청정기에 그때까지의 역사상 존재하지 않았던 아주 작은 규모의 야연이 탄생되는 과정을 살폈다. 야연은 '왕과 세자'만의

긴밀하고도 흔들림 없는 유대감과 이들이 공유하는 세계에 대해 서로 확인하는 아주 중요한 연향의식이었음이 확인되었다. 이를 위해, 절차는 1작의 헌작으로 그치는 것이 가장 타당했다. 야연은 필요에 의해 작은 규모로 제작되었을 뿐, 결코 약식의 연향은 아니었다. 오히려 이보다 더 큰 규모로 만들어진다면, 이는 더 이상 야연이 꿈꾸는 ‘왕과 세자’만의 은밀하고도 굳건한 믿음의 표현을 감당할 수 없는 실패한 의식이 되고 말았을 것이다.

이러한 야연에서 세자가 올린 그 ‘단 한 번의 의미있는 爵’을 받아놓고, 세자의 충심이 담긴 노래 ‘세 곡’을 연이어 듣게 되는 이 순간의 창출은 야연의 핵심이 아닐 수 없다. 이 중요한 순간을 위해 술한 사람들을 감동 시켜온 가곡은 ‘동일한 그 감동’을 전하기 위해 ‘악가삼장’으로 거듭나 야연에 자리 잡았던 것이다. 이렇게 해서 악가삼장은 야연의 주인공인 ‘왕과 세자’를 부조적으로 드러내는 역할을 아주 잘 수행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특별한 의미를 지닌 야연과 악가삼장은 대리청정의 장본인인 효명 세자에 의해 만들어졌다. 연향문학과 정치의 긴밀한 관계를 여기서 만나게 된다.

#### 참고 문헌

『자경전진작정례의궤』(한국음악학자료총서 13), 은하출판사, 1989.

『(무자)진작의궤』(한국음악학자료총서 3), 은하출판사, 1989.

『(기축)진찬의궤』(한국음악학자료총서 3), 은하출판사, 1989.

『(육당본)청구영언』(영인본), 경문사, 1974.

『국역 순조실록』 데이터베이스.

김영운, 「조선후기 국연의 악무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편, 『조선후기 궁중연향 문화』 권1, 민속원, 2003.

신경숙, 「조선조 외연의 성악정제, 歌者」, 『시조학논총』 22집, 한국시조학회, 2005.

\_\_\_\_\_, 「조선후기 연향의식에서의 歌者」, 『국제어문』 29집, 국제어문학회, 2003.



- \_\_\_\_\_, 「19세기 궁중연향 한글악장-야연의 <악가삼장>을 중심으로」, 『시조학 논총』 20집, 한국시조학회, 2004.
- \_\_\_\_\_, 「순조조의 외연의 한글 악장」, 『한국시가연구』 15집, 한국시조학회, 2004.2.
- 장사훈, 『한국전통무용연구』, 일지사, 1974.
- 한국역사연구회, 『조선정치사』 상, 청년사, 1990.
- 한국음악사료연구회, 「국역 순조 기축년 『진찬의궤』1」, 『한국음악사학보』 14집, 한국음악사학회, 1995.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 『익종문집』 II,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 1998.

<투고일 : 2005.6.30 심사일 : 2005.7.1 심사완료일 : 2005.7.19>

K C I

A Night Court Banquet(Ya-yeon, 夜宴) and  
'Ak-ka-Sam-jang(3 songs of Gagok, 樂歌三章)'  
in Chosun Dynasty

Shin, Kyung-sook

In this thesis I tried to review a night court banquet(Ya-yeon, 夜宴) that is the smallest scale in the royal banquets. I show the results as follows.

A night court banquet(Ya-yeon, 夜宴) was made for the first time by the Heir Apparent, *HyoMyeong*. A night court banquet was performed the formalities called 'Ak-ka-Sam-jang'(The Composed of 3 songs of Gagok, 樂歌三章). 'Ak-ka-Sam-jang' made a distinction a night court banquet among the royal banquets.

When the Heir Apparent, *HyoMyeong* made 'Ak-ka-Sam-jang', he select Gagok genre. Because he had already succeeded in the using Gagok at the song of Court dances(JeongJae, 呈才) and 'KajakiumSiul(歌者外 琴瑟)' of royal court banquet(Woiyon, 外宴).

The Heir Apparent, *HyoMyeong* had placed his hope on regaining royal power under the maternal relatives holding of government. And he had tried his dream becoming a reality through a night court banquet(Ya-yeon, 夜宴). So he prescribed that ceremony was built up attending of 'King and the Heir Apparent' only. And he made 'Ak-ka-Sam-jang' an admiration songs for the King.

Key words : night court banquet(Ya-yeon, 夜宴). Heir Apparent, *HyoMyeong*. Gagok. Ak-ka-Sam-jang(3 songs of Gagok, 樂歌三章). royal banquets. royal court banquet(Woiyon, 外宴). song of Court dances(*JeongJae*, 呈才).

K C I